3월2일 서울 청담동 압구정짐에서 열린 ROAD FC 037 XX 미디어데이에서 출전을 앞둔 여자선수들이 기념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진 왼쪽부터 홍윤하, 임소희, 이예지, 함서희, 박상민 ROAD FC 부대표, 강진희, 정문홍 ROAD FC 대표, 박정은, 심유리. 사진제공 | ROAD FC

로드FC XX, 여성파이터 꿈을 연다

염색체 따온 '로드FC XX' 신설
11일 첫 경기…새 역사의 시작

마침내 ROAD FC가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사상 최초의 여성부 전용 리그 ROAD FC XX를 출범한다. 3월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서울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ROAD FC XX 037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ROAD FC는 여성 파이터의 육성, 종합격투기 여성부 활성화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ROAD FC XX를 신설했다. 여성의 성염색체 XX에서 따온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직 여성 파이터를 위한 리그다. 새로운 여성종합격투기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남성부 경기 못지않은 수준 높고 흥미로운 경기를 예고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ROAD FC 정문홍 대표는 "ROAD FC가 출범 이후 7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ROAD FC 여성부 리그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종합격투기가 메이저스포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ROAD FC XX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종합격투기는 새로운 스포츠로 인정받으며 대중화의 길에 들어섰다.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는 여성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 파이터의 대회 출전에는 아직 많은 선입견이 존재한다. 여성 파이터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위험한 격투기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다. 여성 파이터의 실력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ROAD FC XX 037' 포스터

이런 분위기 속에도 여성 파이터들은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인프라 부족에 훈련과 경기출전 제한 등 어려움이 많았다. 남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며 대회당 1경기 남짓한 출전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어릴 때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해야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슈퍼스타가 그 종목의 인기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바다보다 넓은 저변에서 많은 선수가 꾸준하게 나와야 그 종목은 탄탄한 인기를 바탕으로 대중의 스포츠가 된다.

이제 ROAD FC XX의 출범으로, 여성 파이터들의 무대가 만들어져 목적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 론칭을 기념해 열리는 ROAD FC 037 XX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여성파이터들은 '여고생 파이터' 이예지(18, 팀제이), '우슈 공주' 임소희(20, 남원정무문), '꼬마늑대' 박정은(21, 스트롱울프), '여자 권아솔' 강진희(19, 팀강남/압구정짐), '케이지의 악녀' 홍윤하(28, 본주짓수), '타격 지니어스' 심유리(23, 팀지니어스), 박나영(17, FREE GYM)이다. 현재 ROAD FC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20대 초·중반이다. 아직은 완벽한 기량은 아니지만 기회와 경험이 쌓이면 훨씬 더 성장가능성이 큰 선수들이다. 지금이 기량을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다. 보다 많은 경험과 기회가 이들에게 필요하다.

XIAOMI ROAD FC 037 XX는 그런 면에서 이들의 기량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더 많은 여성 파이터들이 꿈을 펼칠 기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공 건드리고 모르쇠, 스포츠정신에 위배

Sports & Law Story
양중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세트 스코어 2-2, 5세트 15-14로 원정팀이 이기고 있는 매치포인트 상황. 원정팀의 스파이크 서브가 홈팀 진영에 강하게 들어갔다. 가까스로 걷어 올린 리시브에 이은 오픈 강스파이크. 그러나 공은 엔드라인을 약간 벗어났다.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다. 이대로라면 원정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다. 하지만 홈팀 선수들은 펄쩍펄쩍 뛰었다. 공이 원정팀 블로커의 손에 스쳤으므로 터치아웃이라는 것. 홈팀 감독은 즉시 비디오판독을 신청했다. 슬로비디오로 재생된 중계화면에는 원정팀 블로커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포착됐다. 그런데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블로커는 자신의 손에 맞았다고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

배구 경기에서 흔한 장면이다. 예전에는 비디오판독이 없어서 심판의 선언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종목에 비디오판독이 도입돼 결정적 순간의 오심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 이런 장면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차피 탄로 날 텐데, 왜 스스로 시인하지 않지? 스스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선수들이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선수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다. 네트터치나 어택라인 침범 같은 반칙은 순간적이어서 스스로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즉,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선수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수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터치아웃인지, 아닌지는 블로킹을 했던 선수가 제일 잘 알 것이다. 농구에서 투터치 여부가 문제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자기 손에 맞았다고 자백(?)하는 선수를 찾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자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따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뭘까?

●헌법에도 있는 진술거부권

놀랍게도 우리 헌법에 이와 닮은 규정이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서 유래한다. 즉,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비인간적 자백 강요 금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는 묵비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된다. 진술의 거부나 묵비를 넘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V리그에서 비디오판독을 하고 있는 경기 감독관들. '진실을 알고 있는' 해당 선수들은 비디오판독에 앞서 굳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특권에서 바라볼 때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스포츠동아DB

●'신의 손' 논란,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터치아웃에 대해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것이 스포츠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는 2009년 11월 12일 열린 아일랜드와의 2010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신의 손' 논란을 일으켰다. 1-1 동점 상황에서 맞은 연장 후반 1분. 앙리는 윌리엄 갈라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런데 그 어시스트 직전 볼을 컨트롤하면서 왼손으로 공을 두 번 건드렸다. 앙리가 은퇴 후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핸들링 논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팬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앙리가 과연 핸들링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정정당당'임이 분명해 보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8일〉

•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인삼공사	47	32	15	0.681	0	2승
2	삼성	47	31	16	0.660	1	1패
3	오리온	46	30	16	0.652	1.5	1패
4	모비스	48	25	23	0.521	7.5	2패
5	동부	48	24	24	0.500	8.5	3패
6	전자랜드	47	23	24	0.489	9	1승
7	LG	48	22	26	0.458	10.5	3승
8	SK	47	19	28	0.404	13	2승
9	KCC	48	16	32	0.333	16.5	2패
10	kt	48	15	33	0.313	17.5	1승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에밋	KCC	28.6	① 박찬희	전자랜드	7.6	① 벤슨	동부	13.3
② 헤인즈	오리온	24.2	② 이현민	KCC	6.3	② 라틀리프	삼성	13.0
③ 라틀리프	삼성	23.2	③ 김선형	SK	6.2	③ 윌리엄스	kt	12.3
④ 사이먼	인삼공사	23.1	④ 이재도	kt	6.0	④ 메이스	LG	11.9
⑤ 메이스	LG	22.5	⑤ 이정현	인삼공사	5.3	⑤ 사이먼	인삼공사	9.7

•경기결과

LG (22승26패)	87	42 / 45	27-19, 15-23, 23-25, 22-15	42 / 40	82	모비스 (25승23패)
동부 (24승24패)	85	39 / 46	17-18, 22-22, 30-22, 16-28	40 / 50	90	인삼공사 (32승15패)

프로배구 〈8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5	25	10	72	3142	2971	1승
2	현대캐피탈	35	23	12	68	3162	3011	5승
3	한국전력	35	21	14	59	3281	3258	1패
4	삼성화재	35	17	18	55	3189	3219	1패
5	우리카드	34	16	18	51	3030	2997	3패
6	KB손해보험	34	13	21	41	2958	3002	1승
7	OK저축은행	34	6	28	17	2784	3088	2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타이스	삼성화재	1053	①	윤봉우	한국전력	0.61
②	파다르	우리카드	898	②	이선규	KB손해보험	0.59
③	바로티	한국전력	849	③	신영석	현대캐피탈	0.58
④	가스파리니	대한항공	823	④	박상하	우리카드	0.57
⑤	우드리스	KB손해보험	788	⑤	최민호	현대캐피탈	0.57

•경기결과

현대캐피탈 (23승12패)	3	25-22, 25-21, 25-15	0	한국전력 (21승14패)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29	20	9	59	2467	2332	1승
2	IBK기업은행	29	18	11	56	2472	2293	1승
3	현대건설	29	14	15	41	2504	2513	1패
4	인삼공사	29	14	15	41	2336	2372	1패
5	GS칼텍스	29	11	18	34	2502	2575	1승
6	도로공사	29	10	19	30	2357	2553	1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알레나	인삼공사	827	①	양효진	현대건설	0.84
②	러브	흥국생명	758	②	김세영	현대건설	0.76
③	알렉사	GS칼텍스	756	③	한수지	인삼공사	0.72
④	리쉘	IBK기업은행	726	④	김수지	흥국생명	0.64
⑤	에밀리	현대건설	598	⑤	배유나	도로공사	0.57

•경기결과

IBK기업은행 (18승11패)	3	25-20, 25-17, 25-21	0	현대건설 (14승15패)

NHL 〈8일〉

•경기결과

콜럼버스	2-0	뉴저지	필라델피아	6-3	버펄로
토론토	3-2	디트로이트	뉴욕R	5-2	플로리다
St.루이스	2-1	미네소타	콜로라도	3-1	캐롤라이나
뉴욕I	4-1	에드먼턴	몬트리올	2-1 〈연장〉	밴쿠버
애너하임	4-3 〈승부타〉	내슈빌			

NBA 〈8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보스턴	40	24	1	클리블랜드	42	20	1	워싱턴	38	24
2	토론토	37	26	2	인디애나	32	31	2	애틀랜타	34	29
3	뉴욕	26	38	3	디트로이트	31	32	3	마이애미	30	34
4	필라델피아	23	40	3	시카고	31	32	4	샬럿	28	35
5	브루클린	11	51	5	밀워키	29	33	5	올랜도	23	41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40	24	1	골든스테이트	52	11	1	샌안토니오	49	13
2	오클라호마	35	29	2	LAC	38	25	2	휴스턴	44	20
3	덴버	29	34	3	새크라멘토	25	38	3	멤피스	36	28
4	포틀랜드	27	35	4	피닉스	21	43	4	댈러스	27	36
5	미네소타	25	37	5	LAL	19	45	5	뉴올리언즈	25	39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토마스(보스턴)	1771	29.5	① 월(워싱턴)	651	10.9	① 화이트사이드(마이애미)	831	14.1
② 드로잔(토론토)	1545	27.6	② 제임스(클리블랜드)	503	8.8	② 드루먼드(디트로이트)	855	13.8
③ 제임스(클리블랜드)	1483	26	③ 티그(인디애나)	507	8	③ 하워드(애틀랜타)	750	12.9
④ 어빙(클리블랜드)	1383	25.1	④ 로우리(토론토)	386	6.9	④ 러브(클리블랜드)	510	11.1
⑤ 버틀러(시카고)	1360	23.9	⑤ 윌리엄스(클리블랜드)	292	6.6	④ 고탓(워싱턴)	686	11.1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	2062	32.1	① 하든(휴스턴)	722	11.3	① 조던(LAC)	853	13.5
② 하든(휴스턴)	1855	29	②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	642	10	② 고버트(유타)	819	12.8
③ 데이비스(뉴올리언즈)	1688	28.1	③ 루비오(미네소타)	484	8.6	③ 타운스(미네소타)	760	12.3
④ 커즌스(뉴올리언즈)	1658	27.2	④ 홀리데이(뉴올리언즈)	356	7.3	④ 데이비스(뉴올리언즈)	705	11.8
⑤ 레너드(샌안토니오)	1500	26.3	⑤ 그린(골든스테이트)	434	7.2	⑤ 챈들러(피닉스)	538	11.4

•경기결과

댈러스 122-111 LAL	워싱턴 131-127 피닉스
포틀랜드 126-121 오클라호마	

경기 예고

프로야구 〈9일〉

•2017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 고척 〉	대만
	(오후6시30분)	

프로농구 〈9일〉

•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

SK	〈 잠실학생 〉	전자랜드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오리온	〈 고양체육관 〉	kt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2		

프로배구 〈9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 안산상록수 〉	우리카드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9일〉

배구
●제 11회 아시아 유스 여자 U-18 선수권대회(중국 충칭)

배드민턴
●2017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영국 버밍엄)

아이스하키
●2016-2017 아시아리그
•이글스-사할린(일본 토마코마이), 드래곤-대명(중국 베이징), 아이스벅스-하이원(일본 닛코)
●제 62회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목동아이스링크, 오후7시40분) •경희대-연세대

탁구
●2017 ITTF 이탈리아 주니어-카뎃 오픈(이탈리아 리그나노)

펜싱
●제 46회 회장배 전국 남여 종별 펜싱선수권대회(전라남도 해남우슬체육관, 오전9시)

오늘의 토토 〈9일〉

•야구토토 매치 3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3.09 (목) 18:30	대만 vs 한국	고척스카이돔